

1967.3



목 차

오 사랑스러운 아침	1
권두언 (선교부장)	2
예언자의 말씀(대관장)	6
시	
다리를 놓는 사람(윌 알렌 드롬골)	10
선교사 초대 (아이다호주 편)	12
토막 삼식	15
돌문경 소고(한 인상)	17
"저기 그가 간다."(웬델 제이. 애쉬튼)	21
하이어 박사와의 대답	25
우리는 지지한다.	28
성도의 벗 퀴즈실	30
성도의 벗 확보	31
계시관	36
돌문경을 읽자	40
대화의 골짜기	
알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영란)	43
하늘은 말한다. (김 용일)	45
멀리 있는 성도들	47
축 간행	50
지부 소식	53
편집 후기	56

* * * *

표지 설명

신 대륙에 나타나신 예수그리스도.

오 사랑스러운 아침
밝게 비쳐 주는 해
벌과 새들 노래하니
온 숲이 음악이 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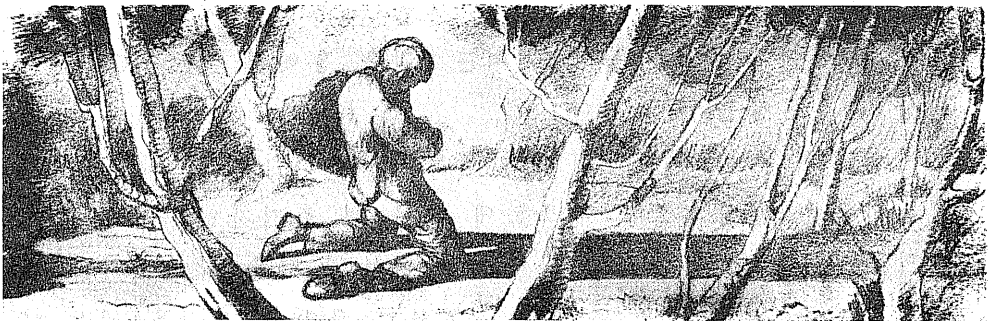
그늘진 숲에서 요셉

하나님 찾던 그때

그늘진 숲에서 요셉

하나님 찾던 그때

* * *



卷頭言



놀라운 책 물몬경

裴 一 文 部長

놀라운 책인 물몬경과 이 돌몬경의 출판은 근세 종교 역사에 있어서 급속도로 괄목할 지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일찌기 에그버트 비. 그랜딘은 1830년 뉴욕주 팔마라야 인쇄소에서 물몬경 5,000부를 처음으로 인쇄하면서 이 사업이 일년에 백만부를 인쇄하는 기하학적 인쇄의 첫출발이라는 사실은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랜딘의 수동 인쇄기로 출판을 시작한 이래 약 7,000,000부 이상의 물몬경이 인쇄된 것으로 추정한다.

1960년까지 각종 24개국어로 번역된 물몬경 출판 부수는 4,000,000권이 이상이 된다.

또한 선교사업의 진전은—"모든 회원은 선교사"— 친구의 도서관과 구도자들에게 최근 5년을 통해서 3,000,000부 이상의 돌몬경을 배부했다.

교회 회복 벽두부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열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새 증거자인 이 물몬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도달하게 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물몬경 출판이 시작된 것은 18

물의 샘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를 경배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제 나는 이 아름다운 땅의 암흑에 사는 수백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낮의 빛을 보게할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염려하고 크게 걱정하는게 하나있다.

성도들이 이 역사적인 중대사를 어떻게 받아 드리겠느냐? 하는 점이다.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태도를 갖을 것인가? 니파이가 말일에 대하여 예언한대로 (니이 29장) 어리석은자들이 쑥덕어리고 불평하며, "성경, 우리는 성경을 가졌도다. 이에 우리는 더 필요하지 않도다"라 함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권고 하신대로 이 경전의 말씀을 연구하며, 이 안에서 영생을 찾을 것인가?

나는 진실로 우리가 몰몬경에 대한 참된 간증을 갖게 하려 천사 모토나이가 우리에게 전해 준 이야기를 교회의 모든 회원과 선교사와 친구들에게 간곡히 전하고 싶다. 모토나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트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여기시어 허락하사 너희로 이 기록을 읽게 하실 때에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을 때까지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록

이 어머니의 힘과 아름다움과 사랑의 위대함을 가히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러한 모든 심스런 헌신을 바치고도 어머니는 아무런 보상을 구하지 않으신다. 간혹 그 사랑이 보답될 때 만족해하시되 그렇지 않고 그의 철없는 자식이 그의 가슴을 상해주고 돌쳐서도 어머니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며 비겁한 것 이상으로 스스로를 낮춰 감사 준다.

정말 어머니는 아무것도 삼 받으려하지 않으신다. 자기 뺨에서 자식의 뺨으로 옮겨 심어진 장미꽃에 대해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병석을 살펴준 간호에 대해서도, 자식의 교육과 또 그들이 동료들 간에 꼴 사납지 않은 복장을 갖추게 하는데 필요했던 자기 부정과 희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생각 없는 언행으로 가슴 아프게 했던 많은 것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비단 이러한 것 뿐만 아니라 이밖에도 수천가지가 모성에 포함되며 어머니는 그 상을 구하지 않고 다만 감내하신다.

그리스도가 생애의 가장 극악한 고통의 순간에 그의 모친을 생각하셨다. 이러한 예는 만물의 어느 경우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친히 본보기가 되셨다.

이제 나는 교회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전하고 싶다. 비단 어머니 낱에만 아니라 일년 사시를 두고 어떻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가에 대하여 권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에게 흰 카네이션을 드리는 경우 어머니는 이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편지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다는 글귀를 적으면 이로써 어머니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신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머니가 주신 그대로 흠없이 깨끗이 지키어 이를 어머니께 확신시켜 드리면, 어머니는 이러한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릴 것이요,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어머니로 기쁨을 누리시리라.

* * * *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애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넓은게 또 하나 있지
사람되라 이트시는 어머님 은혜
넓은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애

(이 기사는 대관장님 말씀과 관계없음)

다리를 놓는 사람

노인 한분이
홀로 큰 길을 가다가
춡고 음산한 저녁에
어느 협곡에 다달았습니다.
협곡은 뜨고, 깊고, 넓었고,
그리론
침침한 물이 흐르고 있었읍니다.
노인은 화혼에 물을 건넜고
침침한 물살이
전혀 두렵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안전히 마른편에 다달은 노인은
물을 가토 지르는 다리를 놓았읍니다.

"노인!" 가까이 있던 나그네가
말했읍니다.

"다리를 놓고 계시다니
기운을 낭비 하십니까."
노인의 여토는 노인의 마지막날에
끝나고,
노인께서는 다시는 이 길을

가나지 않은 길,
이제 이 길도 넓은 협곡을
지나쳤는데,
어찌하여 이 저편에
다리를 놓습니까?

이 예 노인은
반백이 된 머리를 흔들고
말했습니다.

"어보시오!

내가 지나온 길에
이제 이 길을 지나야 할 젊은이가
있을 때 두들 따라 올이다.

내게는 아무런 지도 없었지만
그 빛나는 머리털의 젊은이에게는
이 협곡이 두서운 감정이요.

어보시오!

그도 향촌의 속사 이곳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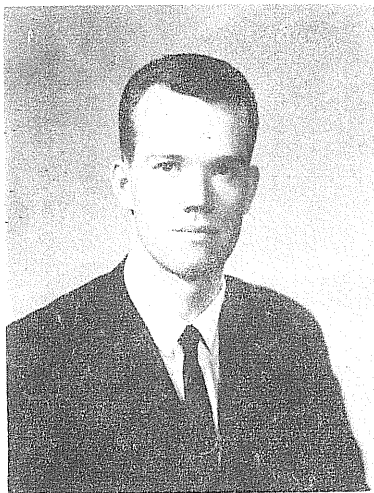
지나 것이기에,

내가 그를 위해 다리를 놓는 거라고.

선교사 초대

아이다호 주편.

윌라드 장로



근래로 나의 마음은 내가 느끼기에도 여러 갈래로 방황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날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 보고 그리고 툇튼 현재를 살피는 것이다.

과거로 마음을 달리다가 으레히 나는 고향 생각을 하게 된다. 거긴 밤이 시원하고 눈 쌓인 산등성이로 실바람이 사그락 거리고 감자가 크게 영글고. 참으토 즐거운 나의 고향 아이다호주의 추억과 나의 가족과 함께 보낸 행복한 연륜이 거기 도사리고 있다.

차차 세월이 지나 우리는 홀어져야 했다. 형은 대학교 수업을 떠났고 나는 한국에 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에게 진리를 전할 기획을 세워 대한민국에 왔다. 그간 부모님들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했고 작은 남동생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부름으로 남미 칠리

에서 선교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 동생은 울 여름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현재로 생각을 돌이켜 보면 최근 한국에서 생활한 이년 반의 세월이 한편으로는 어려움속에서 부딪힌 세월이었고 한편으로는 내 생애에서 다른 어느 때 보다는 가장 복받은 즐거운 세월이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그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하나로 연합시키신다는 사실이다. 예를들면 비록 우리 가정의 가족이 세곳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진 진리의 지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복음은 교회 전체를 통하여 이와 똑같은 작용을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는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같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로 연합한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친근을 느끼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수록 더 그들이 우리의 것을 이해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처음엔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오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도 사교와 종교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생활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 어려움은 제거된 것이다.

이제 지난 세월을 정리하기 앞서 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나는 처리 못할 만큼 섭섭함이 쌓임을 느낀다. 나는 필경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그리면서 훌륭한 이곳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게 될 거다. 정말 나는 한국 성도와 한국 성도가 가르쳐준 수 많은 것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내가 잠차 공부하려는 대학 과정에서 역시 나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을 분명히 안다.

한국 성도들에게 늘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노트만 율라드장토

* * * *

우리는 다시 이 지면은 빌어 이번 선교사 초대탑에 소개된 율라드 장토와 함께 귀국한 데벨. 할 장토의 노고와 헌신적 봉사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이 분 역시 아이다호주 출신으로 소박하고 성실한 그의 품성을 다하여 교회 발전에 노력했었다. 특히 그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부산지부에서 그는 참된 선교사요, 참된친구, 그리고 참된 교사였고 또한 조력자였다.

부산을 떠나면서 전송나온 성도들에게 감추려고 그렇게도 애썼지만 그에 울음을 터뜨리고 그 큰 손으로 눈을 가렸을때 형제 자매는 거기서 참된 복음의 사랑을 느꼈다. 할 장토여! 오래도록 기억하리. 그 큰 키와 그렇게도 붉었던 얼굴이랑을, 그것은 필시 크게 불타는 열망과 간증의 표상이었으리.

부산지부의 성도들과 함께 한국의 전 성도가 다시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벗 부산주재 기자

트릭싱식

오늘날에도 지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생활하시던 당시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는 12사도들이 계시며 전세계 밤밤곡곡을 두루 여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들 열두분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죠셉 필딩 스미스

1876년 7월 19일, 쉘트레이크시에서 죠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6대)의 아들로 출생, 하이람 스미스의 후손. 1899년 영국 선교부에서 봉사. 1910년 4월 대회에서 사도로 지지됨. 1951년 4월 12사도회 회장. 1965년 10월 대관장회의 보좌로 임직. 20여 권의 저서가 있음.

2. 해롤드 비. 리.

1899년 3월 28일 아이다호주 크리후토에서 출생. 1941년 4월 사도로 성임.

3. 스펜서 더불유. 김블

1895년 3월 28일, 쉘트레이크시에서 출생. 1943년 7월 8일, 사도로 성임됨.

4. 에즈라 래후트 벤슨

1899년 8월 4일, 아이다호주 워트니에서 출생. 1943년 7월 26일, 최연소 사도로 성임됨. 아이젠아워 행정부 요청으로 8년간 농림장관 역임.

5. 마크 이. 피터슨

1900년 11월 7일, 쉘트레이크시에서 출생, 1944년에 사도로 성임됨.

6. 데버트 엘. 스테이폴리

1896년 11월 11일, 아리조나주 메사에서 출생. 1950년 사도에 성임됨.

7. 메리온 지. 톰니

1897년 9월 19일, 멕시코에서 출생. 1941년에 12사도 보조로 부름받고 1951년에 사도에 성임됨.

8. 리그란드 리차드스

1886년 2월 6일 유타주 확밍턴에서 출생. 1952년에 사도에 성임됨. "기이한 업적"의 저자.

9. 리차드 엘 이반스

1906년 3월 23일 출생. 1953년 10월에 사도로 성임됨. 국제토테리 크립 회장으로 오는 3월 내한 예정.

10. 하워드 더블유. 헌터

1907년 11월 14일, 아이다호주 보이스에서 출생. 1959년 10월 사도로 성임됨.

11. 골든 비. 힝틀리

1910년 6월 23일, 쉴트레이크시에서 출생. 1958년 12사도 보조로 부름받고, 1961년에 사도로 성임됨. 극동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므로 한국과 가장 관계가 깊은 사도임. 저서 "몰론이란"이 있음.

12. 토마스 에스 몬슨

1927년 8월 21일에 쉴트레이크시에서 출생. 1963년 10월 4일에 사도로 성임됨.

물몬경소고

韓 仁 相

다만 내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내게 돌몬경의 번역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대구에서의 행복했던 9개월의 세월과 거기 쏟았던 열의는 지금은 생각으로도 불가능 할 것 같다. 그러던 끝에 대수롭지 않은 신체의 고장으로 상경한게 돌몬경 작업의 시작이 된 것이다. 그게 1964년 10월. 처음에 상경해서는 그때까지 번역되어 있었던 돌몬경을 교정하라는 당시 선교부장 계일이. 카 선교부장의 지시를 받았었다.

그 때까지 내가 알기토만도 돌몬경은 여러 사람의 손으로 번역되었으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출판을 연기해 왔던 것 같다. 그러나 비록 그 사유는 알지 못했을망정 그 사람들, 그 번역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 두서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처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정에 손을 댔고 그 번역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많은 기도와 금식을 바쳤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으며 나아가 그 사람의 그러한 헌신적인 자세를 갖추기 전에는 쉽게 그것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다. 드디어 나는 노트를 준비했고 그 노트에 문장에 대한 나대토의 견해와 뜻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동반자는 닐슨장토, 아이다호주 출신으로 신중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 얼마 안있어 곧 나는 당시의 지방부장인 이호남 형제의 제일보좌토 부름을 받았고 해야 할 일은 늘어만 갔다.

니파이 일서와 이서의 교정을 끝낸 나의 의견은 첫째 교

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즉 차라리 다시 번역하는게 훨씬 좋겠다는 것, 둘째 원일인지 여러 부분의 문장이 엉어 아닌 다른 언어에서 번역된 듯한 느낌을 주며 정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의견이었다.

1965년 3월 31일, 선교본부와 지방부에 산같이 쌓인 일을 버려두고 오직 돌톤경 출판의 일을 위해 번역자로 새로 임명된 나는 번역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고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미 교정 과정에서 겪은 두통의 의미와 난점의 뜻을 씹씹하게 되새기면서 일종 체념 이후의 결의 같은 것으로 무장을 하긴 했지만

부산 동구에서 일을 시작한게 4월 1일이다. 실제토 부산에 도착하기 2개월 전부터 재 번역은 부분적으로 시작된거고 부산에서의 첫 번역은 야곱서에서 시작되었다. 작업량은 하루 평균이 원문 다섯 페이지였고 상황이 좋으면 여섯 페이지 내지 여섯 페이지 반도 해냈다. 이 때의 나의 건강상태는 대구에서 발병된 간장염의 여세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정도였고 체중은 제일 건강했던 때보다 25파운드나 가벼웠다.

불편함은 없었다. 하루 스물 네시간이 온통 돌톤경에 집중되는 영적으로 고조된 생활이었다. 그러나 결코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업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다. 그놈은 나의 가장 약한대를 찾았고 결국 거기 집중시켜 나를 정지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 시험, 그 시험이랴! 아버지의 건강과 재물 장래는 최악의 지경으로 되어버리고 가뭄은 뼈아픈 편

지들이 나를 어지럽혔다. 한번도 호락 호락하게 핼기를 들고 함복해 보지 않았다는 역사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나 자존심, 기질, 그렇게 나의 참백한 평안의 표정을 고수하게 했다. 그것은 간증이나 신념이전의 나였고 어쩔 간증이 변형되어진 생활이었는데도 모른다.

문제는 내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거다. 내리막길 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의 상황, 거기다가 이미 무언으로 잠태의 동반을 약속한 왠 나의 작은 꺾 프랜드의 상황마저 평안치 않은 면으로 진전되어 갔던 거다. 그토록 두서웠던 시련들! 나는 작은 것임을 거둬 절감하는 시간의 연속들, 결국 나는 기도해야 했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신앙이라기 보다는 자연 귀결의 현상이었다.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또 얼마 안 있으면 첫 예기의 엄마가 될 이규인 자매는 그의 아버지를 사진으로만 알고 컸고 홀 어머니, 그리고 친 할아버지 한분만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나의 선교사 부름 3개월 만에 그 한분의 뼈, 할아버지를 잃었고 선교사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단 하나의 혈육 어머니를 잃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었으면 나는 청운동 튼문을 나왔으리라. 마침내는 그 쓰린 보상을 지불하고서야 나는 조금 성장했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 되옵소서"를 간구했다.

번역 완료를 2개월쯤 앞두고 게일 이. 카 선교부장의 해입 및 스펜서 제이. 팔머 부장의 취임의 연락이 왔다. 반쯤 허물어진 마음으로 1965년 8월 5일 떠나는 카부장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을 때, 나는 정말 경험한 모든 쓰라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실컷, 실컷 울었다.

드디어 번역 완료일이 왔다. 1965년 8월 28일. 나는 번역 완료를 신임 선교부장에게 보고했다. 그때의 그 자유 그때의 그 해방감. 나는 정말 진정한 자유의 맛을 본 최초의 사람이었고 하늘이 높고 넓은 것을 보고 알았다.

계속적으로 연습하던 중압감도 없었고 두려움과 그 아지 못할 피로도 없었다.

이제 까지 나는 내가 몰몬경에 손을 대게 된 경위와 나의 상황 그리고 일반적인 번역 과정 및 완료에 대해서 언급했다. 나의 긴 얘기가 끝나도록 나는 부분적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자세한 번역의 역사를 기록할 작정이고 그로 인하여 한국의 전 성도가 보다 분명히 몰몬경을 알고 그것이 전하는 구원의 뜻을 공부하기 바란다. 번역에 참여하면서 비로서 나는 몰몬경을 경건한 자세로 거듭 공부하게 되었고 복음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간증을 갖게 되었으며 그로서 이미 나의 작업과 시도는 상받았다. 매일 매일 번역된 것들을 읽어보고 과업 이것이 내 손으로 번역되었는가를 자문할 때, 그 순간 허가했던 술한 환희속에서 나의 생명은 연명되었던거다. 몰몬경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다음 호에서는 번역의 작업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적어 보겠지만 혹 "성도의 빛" 독자들이 질문이라도 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해 볼 작정이다. 몰몬경에는 역사와 얘기가 많다.

저기 그가 간다

돈·레스리·린드

1963년 어느날 밤, 캘리포니아 주 콘코드의 어느 집앞에서 두 여자가 환담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소리쳤다. "저기 그가 간다!"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균형잡힌 몸매에 갈색 머리를 짧게 깎은 30대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밝은색의 노란 셔츠를 말쑥하게 입고 있었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이요, 다섯 아이의 아버지로서 고도의 에너지 자원인 원자핵 물리학에 관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돈·레스리·린드다. 그는 정말로 여러곳을 다니고 있었다. 콘코드에서 달려가고 있었던 그날밤은 임직하게 스스로 택한 콘다섬 조절 훈련 계획을 따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의 우주인이 되는데 전념하고 있었다.

유타주 미드베일 출신 물론인 돈 린드는 3년 후인 1966년 3월 30일에 그의 꿈을 실현하였다.

우주인 돈 린드는 그의 생활의 대부분을 여러곳을 다니며 지내왔고 보통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쳐 살아 왔으며 언제나 정통적인 말일성도임을 나타내는 신앙과 조화와 결심으로 살아왔다.

실내 장식가인 아버지와 한 때 교편 생활을 한바 있는 어머니의 외아들(두 여동생이 있음)인 돈 린드는 어린 소년 시절에 병이 잦았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수가 없었다.

차츰 성장하자 그는 기이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한 번은 "아버지, 달은 왜 커졌다 작아졌다 하나요?"하고 물었다. 농구공과 야구공과 조명을 가지고 지구와 달이 어떻게 태양 주위를 돌며 일식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뉴 잉글랜드에서의 선교 임무를 마치고 돈은 유타대학교에 복교하였으며 그는 인기있는 토론가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53년 훌륭한 성적으로 물리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해군에 입대하였다. 15개월이 되기도 전에 그는 항공모함 조종사로 진급하였다. 1955년 4월 1일에 그는 쉘트레이크 신전에서 유타주 토간의 캐즈립 모함과 결혼하였다.

그는 다음에 그의 목표를 박사학위에 두었다. 그것은 7년간이란 길고 어려운 시련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방사물 실험실에서 힘써 일하며 자신이 학비를 조달했다. 헌신적인 그의 부인은 그들의 가정밖에 나아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자녀들은 가끔 싸구려 옷을 사서 입혔다. 두번이나 돈의 부인은 어깨를 수술받았기 때문에 여러달 동안 자리에 누어 갇혀있었다. 그들은 극장을 좋아했으므로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공연에 안내원으로 참가하였다. 한편 그는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으며 보통으로 신권 고문이나 청남 상향회 역원을 하였다.

버클리에서 연구하고 있는 동안 돈은 우주인이 되기를 결심했다. 그는 1963년에 응모하였다. 그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제트 비행경험이 단지 850시간이었다. 최저한계는 1,000시간이었다.

돈 린드는 낙망하지 않았다. 해군예비역 훈련을 통하여 그는 비행시간을 더 늘렸다. 그는 육체적으로 자신을 강인하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밀어올리기, 당기기, 뺨치기, 꾸부리기, 그리고 야간에 1.8마일을 달리기 등으로 스파르타 사람처럼 혼자 맹훈련을 하였다.

후에 나사(미국 우주 항공국)에서 새로운 우주인을 탐색하였으며 이번에는 조종사를 결합 훈련 받은 과학자들을 찾고 있었다. 돈은 다시 응모하였다. 그는 1930년 8월 이전 출생자는 아무도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1930년 5월 18일생이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결의를 넘경한다면 통치하겠소" 하고 당국자들은 말했다.

돈은 그의 어려운 훈련을 계속하였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그는 메리랜드의 그린벨트로 그의 직장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태양계의 바람을 측정하는 기계를 고안하는데 미국 우주 항공국(나사)을 도왔다.

그후 어느 날 그는 그가 우주인으로 고려되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샌맨토니오에서 어려운 신체검사를 7일간 받고 그밖에도 호스톤에서 우주 항해학과 기술 및 기타의 부가적인 과제를 시험보게 되는 것이다. 신체검사중에는 모래위를 달리는 인내력검사가 있었다. 돈은 모래위 달리기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다. 지난해 3월 어느 오후 그는 그가 오랜동안 열망해 오던 일을 통고받았다. 그는 우주인이 되기를 수락하였다.

지금 돈은 달까지 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그는 달까지 가는 첫번째 인물이 될 것이다. 업
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높이 두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
하여 열심히 노력해온 이 물문에 관하여 이야기 할 날이 올
것이다:

"저기 그가 간다!" 고.

(필자: 윈델 제이. 애쉬튼)

祝 進 學

한국 선교부, 한국 지방부 산하 전 회원 중
진학하신 형제 자매님들께 진학 및 입학의 영
광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편 집 실

Hyun
박사와의 대담



" 7-7, 7-7 "

선교부장실로 부터 갑자기 편집실로 부자가 울려왔다. 그러자 몇 마디 대화가 전확토 오고 갔다. 부리감영 대학교, 중국사 부교수, 하이어 박사가 오셨는데 회견하라는 것이었다. 일손을 멈춘 성도의 벗 편집실 스탭들은 부랴 부랴 녹음기를 들고 뉴스원을 찾아 도서실로 달려갔다.

키가 후리 후리하고 김소환 옷차림의 신사를 대한 기자들은 인사를 교환한 후 귀중한 대화를 나누었다.

협재 대담에서 전 동고인 지도자들을 만나 접촉 하면서 과거 50년간의 내 동고와 북 중국의 역사를 6개월째 연구 하고 있다는 하이어 박사는 과거에 일본에서 복음을 전도한 선교사 경험이 있어, 특히 선교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있으며 이번 한국 방문은 처음이 아니라면서 최근 한국 선교부에서 받은 인상과 이번 내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다른 선교지역에서도 느끼는 일입니다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똑같이 의로운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안정되고 신권을 가질 한국 지도자들을 섬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전도하려 하는 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온 것은 한국에 교회를 세우며 그리하여 한국 사회에서 복음이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물론 한국에는 이 복음이 과거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아직도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인 교회로, 한국인 지도자가,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발전시키도록 하기 전까지는 복음이 한국 사회의 지체가 되기에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훌륭한 관념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팔머 부장님이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이룩하고 있다고 보며 교회란 매우 책임감 있고 존경할만하고 박력있고 선한 조직체라는 관념을 한국인들의 정신속에 넣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물론이 되려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안하든 간에, 적어도 그들이 교회는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많은 친구가 필요하며 이것이 교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대만에 오기 전에 하이어 박사는 고향의 스테이크 고등학교의원으로 봉사했으며, 대제사의 신권을 갖고 있다는데, 그는 복음을 통한 생활의 혁명을 이렇게 주장했다.

"현대는 혁명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중국 혁명을 보았고 불란서 혁명을 보았고 미국의 혁명을 보았으며 한국의 혁명과 정치적인 대부분의 혁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산업혁명과 상업혁명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도자이며 여러분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이제 겨우 시각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원장래에 이 위대한 복음의 회복과 복음으로 땅이 채워지는 이 위대한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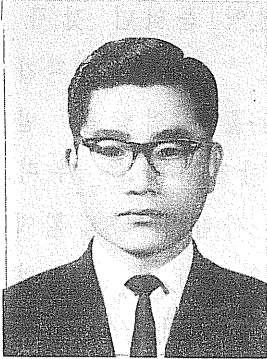
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날이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므로서 진실로 그들이 전에 품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과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지혜의 말씀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고, 친구는 달라집니다. 그들의 습관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혁명은 군대나 총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 가져다 주는 사랑과 복음의 힘에 의한 혁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혁명이며 곧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하이어 박사는 이어 이러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역군은 장로들이라고 지적하고 비록 지금은 소수의 무리지만, 헌신적으로 그들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크게 한국 사회와 대중에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에 임할 위대한 혁명의 지도자요, 선봉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자라기 보다는 교회의 고위 간부로 본업을 착각하리만큼 학술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선교면에 깊은 소신을 밝힌 하이어 형제는 시종 나즈막한 음성으로 속삭이듯 말끝을 이어 갔는데 그 때마다 그에게서 품겨오는 품위와 덕망은 그의 인격과 함께 사뭇 존경심을 자아내게 했다. 한없이 알아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것은 하이어 형제가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생활에서 얻은 남다른 간증을 전해 주기 때문이라.

"확실히 돌문을 만나보면 사는 보람을 느껴" 이것은 엄격으로 폭 넓은 품을 이끌고 편집실로 향하여 층계를 오르며 마음속에 뇌까린 기자의 속삭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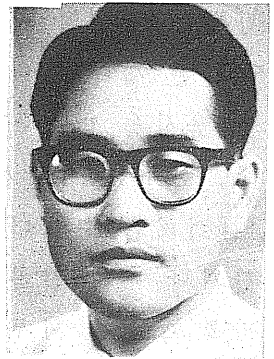
우리는 지지한다.



지방부 제 2 보좌
지 영 달

1967년도 첫 지방대회를 맞아 지방부장단의 관리 역원인 제이보좌에 임명된 지영달 형제는 이미 우리에게겐 오랜친구요, 지방부내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실한 일꾼이다.

1936년 생인 지영달형제는 양반도라고 하는 충청도가 고향. 소처럼 쉬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게 그의 많은 장점중의 장점이다. 그간 지영달 형제는 지방부 소신권 담당평의회원 삼청지부 지부장, 그리고 두 번이나 지방부장단 서기를 맡았던 유능한 지방부 역원으로



지방부 서 기
황 종 섭

황종섭 형제의 신앙은 그리고 그의 착실함과 성실성은 이미 그가 선교사도 부름을받기 이전에도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바다. 한인상 형제 다음에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고, 수많은 외국 선교사 틈에 끼 단 두한국인 선교사로서 황종섭 형제는 가장 훌륭한 역군으로서 일했고 그의 임무를 명예스럽게 끝냈다. 선교사 기간의 모두를 현 동부지부에서 보낸 그는 대부분의 기간을 지부장으로 일했고 지방부 서기의 부



The True Mother

大管長 데이비드 오·멕케이

참된 어머니

모성의 위대성과 아름다움은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대함에 있어 자기에 대한 애착을 초월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모습으로 보아 참된 어머니란 하나의 희생이다.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나 아닌 남을 더 복되게하고 더 훌륭하게 한다.

죽도록 봉사하는 것, 아니면 봉사하면서 죽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른바 참된 영웅의 바탕이며 이러한 진주같은 덕성을 갖추었으므로 모성은 빛을 내게 된다.

모성의 시작은 다만 다른 생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어두운 골짜기를 들어서는 일에 불과하다. 여기서 비로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나니"(요한 15장 13절)라고 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여인들이 높은 이상에 이트려는 동기에 가동되고, 때로는 헌신의 정신으로 이러한 여인의 범주에 몰입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 사실은 여인이 지닌 참된 위대성이 겹잡은 병정이 불멸의 명예를 쟁취하라는 강제를 받고 전쟁에 몰려가 얻은 명예라던지 조국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영웅의 명예만 못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또

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자랑스런 형제다.

물질문명의 광폭한 물결이 현대의 지성을 짓밟는 이 위기적 상황에서 배가고파도 부정한 빵은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신앙 신조로 하는 지영달 형제를 지방부장단의 일원으로 맞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서기로 일하는 중에 경험한 많은 행정능력을 동원하여 지영달 지방부 제이보좌가 맡을 분야에 서 획기적인 행정정리 및 기구정비가 기대되며 특히 상호향상회에 있어서 계통과 질서를 생명으로 하면서도 능률적이고 유의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것을 우리는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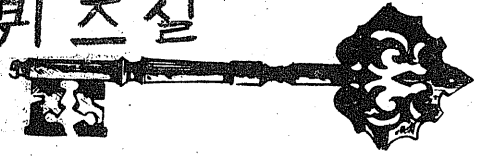
그의 취미는 사진 촬영, 거기에다 지방부에서 들쭉라면 곧 상을 찜그릴 대식가. 그와 그의 이웃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틈을 받기 전까지 그는 "가장 훌륭한 지부장"으로 주께 봉사했다.

검양과 정확을 함께 갖춘 황종섭 형제가 지방부장단의 서기로 일하게 된 것을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이 직분을 통하여 그의 재능과 소망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1939년 생인 그는 역시 충청도 천안이 고향. 동부지부장의 해임을 기다리기도 했으나 일단 해임의 통보가 전해지자 곧 섭섭해 했던 그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의 따듯한 정과 사랑을 느꼈다. 감정이 안으로 축적되어도 단 한번도 그것을 외부로 폭발시킨 일이 없는 이 "작은 거인"은 물론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다정한 일군. 역원 개편으로 재무장하는 지방부의 역군으로 보다 가치 있고 합당한 일들을 이룩할 수 있기를 모두 함께 기도하자.

聖徒의 "벗"즈실



제 1 회 문제, 해답 발표

(해답)

1. 마태, 마가, 마르다, 마리아, 마기, (마길, 마드렌 등)
 2. 커트란드 신전 (1836년 3월 27일)
나브 신전 (1846년 5월 1일)
 3. 6인치, 8인치, 8인치.
- (정해답자) 없음.

제 2 회 문제

1. 지혜의 말씀은 말일성도의 표준 경전중 어느 경전 몇장에 기록되어 있나?
2. 역대 대관장 중에 십일조의 법을 강조하신 분은 몇대 대관장 누구인가?

응도 요령

1. 문제와 해답을쓰고 주소 성명과 소속지부명을 명기할 것.
2. 해답은 성도의 벗 편집실로 보내되 "독자권"을 동봉할것.
3. 해답은 4월 25일까지 보낼 것.

시상

1. 3회 계속 정해답자(성도의벗 1년분)
2. 정해답자는 성도의벗에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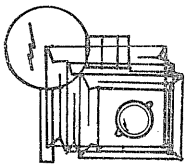
제 2 회

독자권

“성도의 벗 畫報”



일문 유치원 창설
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물문경 조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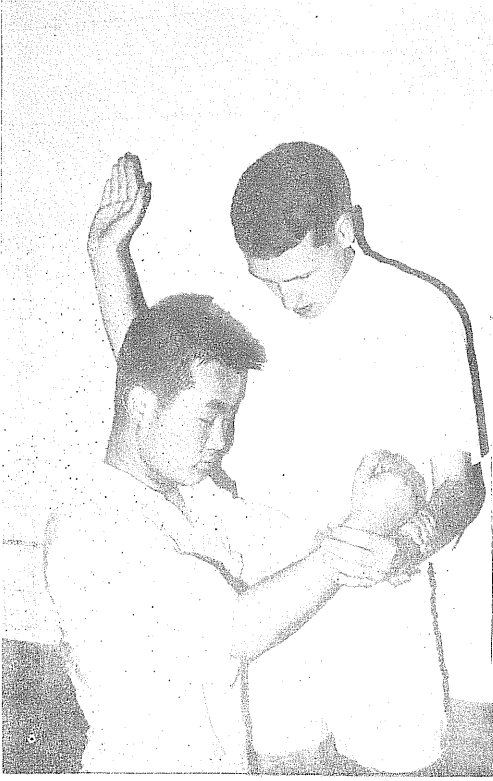
“우리는, 물몬경이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가두 전도 하는 벽장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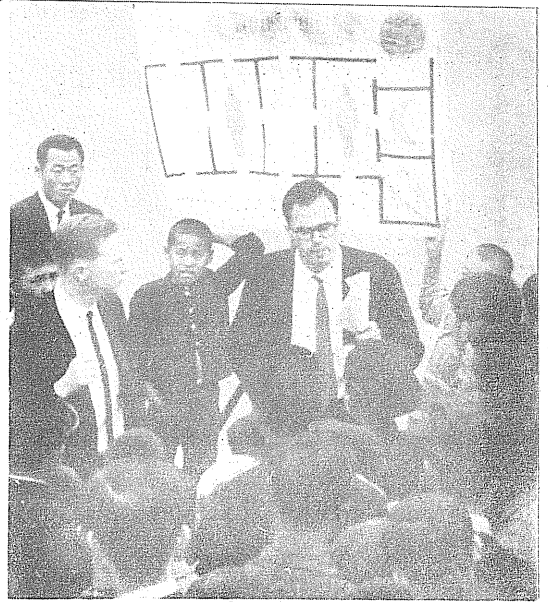


광주에서 연설
하시는 선교부
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광주 시민들.
이날 선교부장
님은 한국과
기독교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으며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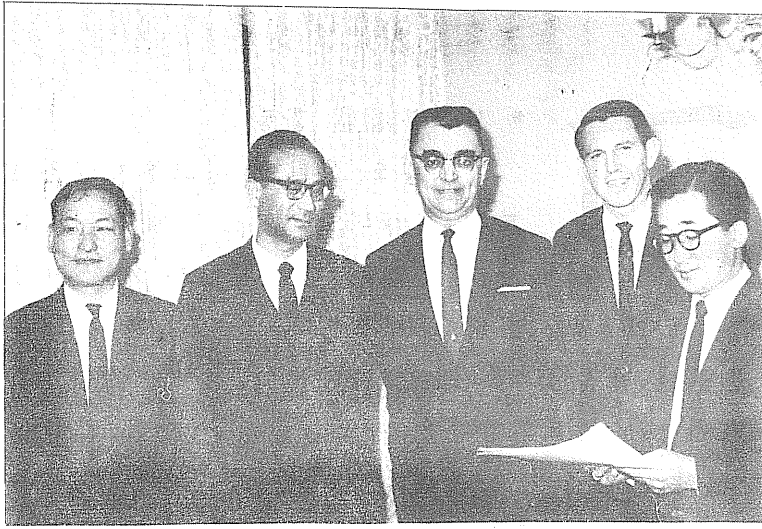


일로 성장의 길에 오른
광주지역



교회가 있는 마을 (하늘에서 본 동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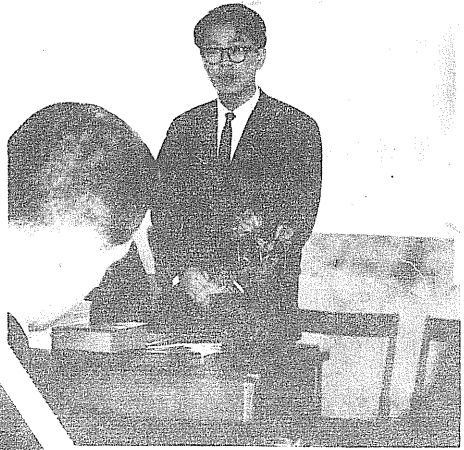
선교부장은 이러한 대외 활동을

지역책임자

김종균 형제

"성북 지역"

우리의 첫번 소망이 실현된 날



게시판

* 선교부장님 활동

오늘도 우리의 선교부장님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때로는 학자가 모이는 강단으로 때로는 저명인사가 모이는 모임으로, 그리고 때로는 멀고 가까운 성도들의 처소를 분주한 발걸음으로 찾아 다니신다. 지난 2월 호남 지방을 순회하신 선교부장님은 피로한중에 커다란 기쁨을 안고 상경하셨다. 전주에 들리신 부장님은 그곳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동부지부의 박주인 형제를 만나신 후 그와함께 말씀하시는 중 그를 격려하시었고 그리하여 박주인 형제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더라고 동행했던 수행 선교사가 전한다. 이밖에도 전주 예수 병원 기록과에 근무하고 계신 임군열 형제와의 대화에서 크게 용기를 얻으셨다는 부장님은,

"거기 정말 몰몬의 성도가 있습니다."를 연발하시면서 임형제를 극구 칭찬하셨다.

임형제는 군산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이 복음의 참 감증을 지닌 분이라고.

또한 현재 전주에서 새 살림을 시작하신 이인자자매님은 찾아뵙지 못했다고 하신다. 전주에는 이렇게 세분의 몰몬이 계시다.

* 일문 유치원 개원

오랜동안의 작업을 끝내고 마침내 일문 유치원의 문을 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라"는 말씀과 "무지하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계시로 전달받은 몰몬이 처음 설

립한 교육기구. 일문 유치원은 동부지부에 부속창설된 것이다. 원장직을 맡게 된 지방부장님의 부인 이 순애 자매님은 바쁘신 대학교사토의 바쁜 일정을 조개어 두보수로 원장의 직을 이끌어 가신다. 현재 35명의 원아가 등록된 일문 유치원은 3월 2일에 개원식을 한 후 3월 3일부터 정상 수업. 교사엔 동부의 김양자, 서부의 박찬주 자매가 수교 하신다.(사진은 확보에)

* 광주의 첫 주일학교

1967년 2월 12일에 그 첫 조직을 본 광주지역 주일학교는 회장에 박병규 형제를 모셨다. 이로서 현재 선교부 산하 주일학교 수는 총 10개가 된 것이다. 광주지역의 건투를...

광
주
지
부
의
금
바
울
장
토
님
께

감 사 장

부산지부의 금바울 장토님께

금바울 장토님께서서는 매월 성도의 벗 20권을 구입하시어 친지 여러분께 전해드림으로서 훌륭한 선교 사업을 하십니다.

편 집 실

高麗時報

본 기사는 고려시보 1967년 1월 15일자에 실린 것으로 서울 동부지부를 방문했던 고려시보 기자에 의해 취재된 기사. 지방부장님의 알선으로 동부지부를 방문했던 그 기자는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계속해서 탄성을 발하기도.....



基督敎의 二 敎派가
 많은 中 二 敎派가
 리나라에그 리 호하지
 많은 中 二 敎派가
 리나라에그 리 호하지
 많은 中 二 敎派가
 리나라에그 리 호하지

한편 同「몰몬」敎派는 一九二〇年 東部아메리카에서부터 시작된인제 P oseph Smith, Jr. 란사람이 創設한敎會이다. 우리韓國에 同敎派가들 한다



아름다운敎會!

3百餘信徒가예배보고

基督敎의 二 敎派가 10年을 前後한 中에는 여섯곳의 敎會로 立이였으나 우리나라에 宣 教師를 파견하여 生存하 는五十餘名의 宣教師가있 는것으로보아 그규모가크 다고 한수있겠다. 韓國의 都市를 中心하 同 末日聖徒예수그리스도 敎會의 興隆한 모습으로 敎會가 立기어지지만 서 歐美의 스타일과같은 大韓建의 모습을 보여 주고있는것이 그특징중하 나이겠다. 龍頭二洞一三四의十九에 宣 千五百餘坪의 넓은땅에 二五〇餘坪의 敎會堂建坪

敎會가있다 同敎會는 一九六三年度에 起工하여 바로昨年九月에 준공되어 同年十月에 현 당식을 가졌다. 敎會의 규모로보아 六百 名의 敎人을 수용할수있 지만 지금현재 장년이百 二十名 中等學生이五十 餘名 어린이主日學校學生 이 五十餘名으로 家族의 人 분위기속에서 每主日 마다 예배를 드리고있다. 한편 同敎會는 長老가 十三名 기타제직이 수십 명 있지만 敎會마다 牧 師가없이 長老들이 서로 돌아가며 說教하는것이 특 징이다. 그리고一般韓國의 基督 敎에서는 술과 담배를 禁 하고 있으나 同「몰몬」 교파에서는 술과담배를 禁 함은 물론「커피」를 禁 禁하는것이 또한 특 색이있는 點이었다. 기理 由는 사람의 身體의 害로 운 물질은 취하지 않는 것이 옳기때문이라고한다. 그리고 同敎會를 禮入 지고禮拜를 인도하는 이 는 現서울大學校師範大學 科 東國大學校生物學室에 서 講議하시느理 學博士 車鍾煥氏이다. 老이면서 敎會의 職員이 長老代表者이기도 하다. 그는「國民은 물론 우 리敎人들은 神의命領에복 종함은 물론國家의國家의統 治者에게절대부 종하여야 한다. 면서 末日聖徒 예수그리스도敎會의「경전」제 十二조를 소개 하였다.」우리는 항 대를經統 治者長官에게순 종함을민으로써 法律을 준중 하고지키고 지 지함을민는다. 車鍾煥博士는 學者이면서敎會 牧者의 責任을 切實한정력이년 치는아니信念에가득찬본인의 분명했다.

그리고一般韓國의 基督 敎에서는 술과 담배를 禁 하고 있으나 同「몰몬」 교파에서는 술과담배를 禁 함은 물론「커피」를 禁 禁하는것이 또한 특 색이있는 點이었다. 기理 由는 사람의 身體의 害로 운 물질은 취하지 않는 것이 옳기때문이라고한다. 그리고 同敎會를 禮入 지고禮拜를 인도하는 이 는 現서울大學校師範大學 科 東國大學校生物學室에 서 講議하시느理 學博士 車鍾煥氏이다. 老이면서 敎會의 職員이 長老代表者이기도 하다. 그는「國民은 물론 우 리敎人들은 神의命領에복 종함은 물론國家의國家의統 治者에게절대부 종하여야 한다. 면서 末日聖徒 예수그리스도敎會의「경전」제 十二조를 소개 하였다.」우리는 항 대를經統 治者長官에게순 종함을민으로써 法律을 준중 하고지키고 지 지함을민는다. 車鍾煥博士는 學者이면서敎會 牧者의 責任을 切實한정력이년 치는아니信念에가득찬본인의 分명했다.

末日 聖徒예수그리스도敎會

「물론」教仁川市布教

술 담배「커피」등 敎理로 禁止

인천에 새로운 종교가 선교되고 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물론교) 스펜서 장로 등 4명의 선교사가 물론교를 전파하기 시작해서 인천에 온지 20일 만에 20명의 신도를 모았다 한다.

7일 상오 인천시장을 방문 하러 온 선교사들은 눈오는 거리로 다시 나왔다.

기자가 만난 인천지구 선교책임자 스펜서 장로는 이교회의 교리로 정하고 있는 「술 담배 커피」의 「타부」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것은 몸을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고 했다

이교는 살아있는 예언자와 12사도를 모시고 있었다 한다.

역사는 1백37년에 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실존했던 조제비 스페인인을 바탕으로 탄생된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 선교된지는 11년 세월(6) 대구(1)

광주(1) 부산(2) 교회를 세운 후 인천에선 인강이 시작했다고 한다. 인강이 만들어낸 교인간이 나라이며 연차에 의어 있다.

인천 매일신보에 실린 인천지역에 관한 기사. 현재 인천지역에는 스펜서 장로를 필두로 이점현 장로, 슈미트 장로, 호프만 장로 등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지난 지방부 연차대회에 참석했던 인천지역 회원들에게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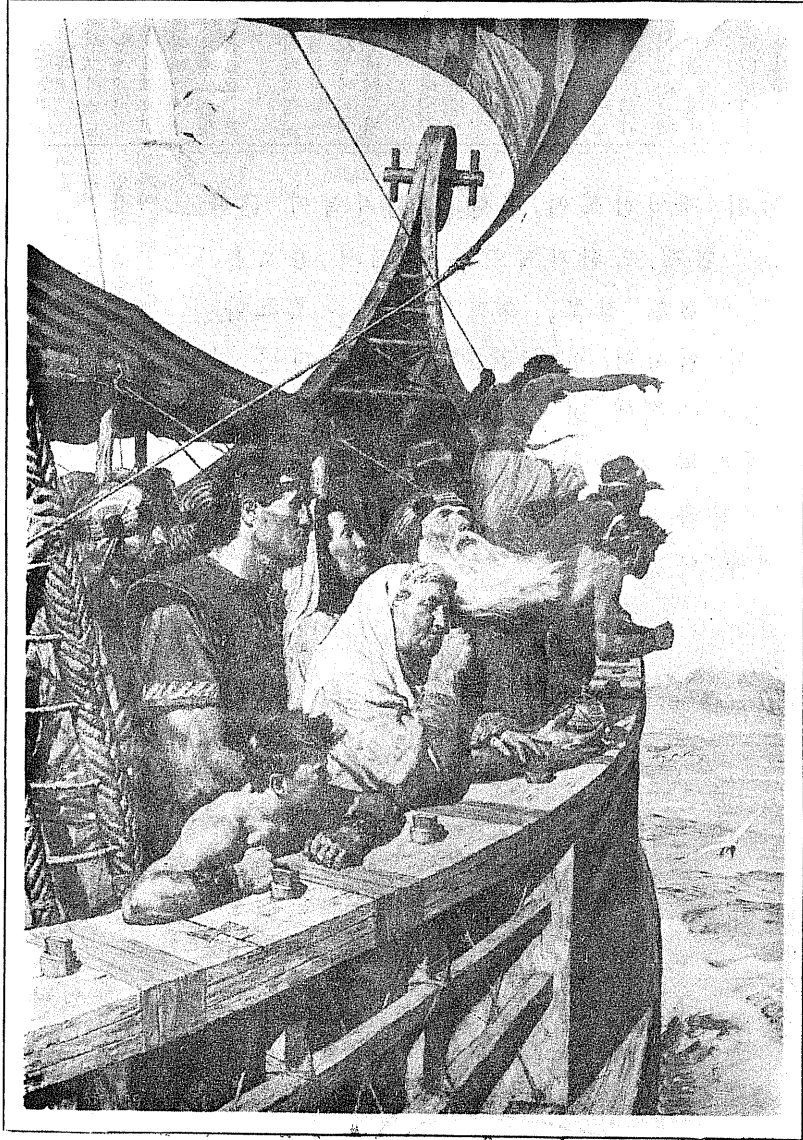
* 빛을 발하는 별

이 재수 형제. 현재 광주 지역에는 이 재수 형제님의 안내를 받고 교회에 참석하는 구도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성도로서의 직분 가운데 가장 훌륭한



한 직분인 선교사 활동을 이 재수 형제님은 선두에서 이행해가고 계시다. (우로부터 첫째가 이 재수 형제님)

할본경을 읽자.



저기 약속의 땅이 보인다!! (니일 18:23)



구모리산에 거북한 기록 묻혔다



남미에서 발견된 침례탕의 모습.

힐라맨과 암몬인 이천

(앨 56:9)



니파이 왕국의 최후 (몰 6)



알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영란

존경하는 형제 자매님께 제가 세배드립니다. 제가 이 성도의 벗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알았을 때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교회에 나온지 약 2년이 되는군요. 저는 그때 대학입시 준비로 바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우연히 길에서 선교사님이 주신 약도를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부지부로 참석했을 때 저는 기대보다 실망이 컸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면 하이얀 벽에 예수님의 초상화라든가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초라한 강단에 예배를 볼 수 있는 의자와 피아노 뿐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신앙을 얻어 정신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망설였었어요. 그러나 확실히 무언가 다른 교회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입시준비에 바쁜 틈이 있었지만 틈 나는대로 선교사님과 공부했었어요. 제 의문은 하나씩 둘씩 임긴실이 풀리듯 풀어져 갔어요. 그중 하나를 들자면 예수님의 초상화와 십자가가 왜 안걸리느냐하면 그 표식을 놓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아무런 표식이 없이 오직 마음으로 경건하게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야

말토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교회야 말로 정말 참된 교회라고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초라했던 우리 서부지부가 하나님의 축복아래 지금은 하이얀 벽과 그리고 넓은 베이지색의 비닐 바닥과 자주 빛의 커튼, 여름이면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볼 때 한없는 고마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나 많군요. 제가 침례를 받는 은총을 주셨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대학교를 무난히 합격하여 벌써 2학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얼마전까지 상호참사회에서 교회를 위한 일을 해오다가 지금은 유년주일학교에서 천진스러운 어린이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도 어린이가 되어 버릴 것만 같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우리 나라에 오셔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팔머 선교부장님과 선교사님들께 뜨거운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옛날과 똑같은 12사도가 계시고 그리하여 헌제 계시를 받고 있는 참된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친절한 말, 고운말을 입에 올리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참을줄을 알고, 노여움과 두려움에서 깨끗이 해방된 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성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님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시어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이 계시길 기도 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은 말한다.

김 용 일

하늘 하얀 꽃이 내리면
고요한 대지
대지는 세상을 벗을 때
우리는 하늘을 입을 때

하늘은
말한다.

"너희는 이같이 죄를 떠났는가"

영혼은
추수를 지나도
구함이 없고
독이 마른 나무

나무야
성찬을 취하자
하늘을 뚫아 하늘로 자라며
신하며
영원히 뚫아라

성찬을 취하면
고요한 영

얻은 세상을 잊을 때고
얻은 그 나라를 구할 때고

하늘 하얀 꽃이 내리면
하늘은
말한다
"너희는 이같이 세상을 이겼는가 "

(부산 동구지부)



멀리있는 성도들

美國生活의 이모 저모

홍병식 형제.

고국에 귀신 벗어

미국생활 수년동안, 아버지, 남편, 딸들이뿐,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지내온 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바 하도 많아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나 하나 풀어 가며 고국에 계시는 여러 친구들과 지상을 통하여 이야기들 좀 하고파 졌습니다.

제 1 화

제가 속해 있는 Santa Monica Stake 의 Brentwood Ward 에 Donald Horst 라고 하는 합본이 있었습니다. 십여년전에 교회에 개종한 후로 반석같은 신앙을 쌓았고 지도력과 활동력이 탁월하여 얼마 후에는 Brentwood Ward 의 감독으로 임직되었습니다. 그분이 감독으로 있는 동안 이 stake 의 9 ward 중에서 Brentwood Ward 가 무엇이든지 제1위였다. 합니다. 신권회, 주일학교, 성찬식 및 모든 집회의 참석율과 활동상황이 항상 첫째였다 합니다. 그후 Horst 형제는 Stake 의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선교부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Santa Monica Stake 선교부의 활동이 또다시 전교회의 스테이크 선교부 중 첫째였습니다.

그후, 모든 스테이크 선교부장단은 70인들이 하도록 교회의 정책이 바뀌지자 Horst 형제는 선교부장 직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 때 그는 사업도 번영하여 더 부촌이라고 알

려진 Pacific Palisade 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Pacific Palisade Ward 의 감독회 재 조직이 있었는데 이 Horst 형제는 감독회의 제일보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의 감독은 전에 그가 Brentwood Ward 의 감독으로 있었을 때 자기의 제일보좌로 있던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찮은 일같이 보일찌 모르나 이분들이 저에게 보여준 교훈은 교회에서 일하는 가치는 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맡은 바 직책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뚜렷한 예는 Carl Buehner 장로가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대간부 (General Authority) 의 일원인 관리 감독회의 일원으로 있던 분이 대관장회로부터 자기도 이유를 모르게 해임되고 그 다음에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훨씬 낮은 자리인 교회의 상호향상회장단의 보좌의 직책이었습니다. 작년 저는 그분의 말씀을 스테이크 대회에서 들은 바 있었는데 그만큼 감동을 받은 말씀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직책으로 부름을 받든지 행정상의 고저를 가릴것 없이 성심 성의껏 일을 하는 태도는 쉬울 것 같으면서 싫지 않음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봉사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도 저는 새삼스러이 깨달았습니다.

제 2 화

약 반년전에 이곳 남가주에 살던 미국에서도 굴지의 부호 한사람이 사망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큰 개밥제조 회사의 사장으로서는 무척 돈이 많은 사

람이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일면 보수적 정치세력의 일익을 담당하여 이곳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64년도에 Barry Goldwater 씨가 대통령에 입후보 하였을 때에도 앞장서서 보수적 정치세력을 규합하는 운동을 건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유언중 일부가 신문에 크게 보도되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 재산중 백만불은 누구에, 또 백만불은 누구에 ... 하고 열거하다가 백만불을 이곳에 있는 Pepperdyne College 에 기증하라는 유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증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란 Pepperdyne College 가: 모 정치 평론가(극보수적인 언론인였음)에게 박사 학위를 주면은 백만불을 기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일후에 Pepperdyne College 에서 성명서가 발표 되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그 대학이 그 정치논설가에게 박사 학위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백만불과 학위를 교환할 수 없다는 성명이었습니다. 백만불이면 열국의 왕들의 입도 벌릴 수 있는 액수임을 생각할 때 학위의 권위와 신성을 유지하려는 Pepperdyne College 에 대해서 엄숙히 머리를 숙이고 싶었습니다. 특히 얼마전 한국에 있는 모 여자 대학에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했다는 보도를 읽었을 때 더욱 느껴진바 있습니다. (학위를 주겠다고 제의를 거절했다는 대통령의 부인에게도 경의를 포함합니다.)

(제 3화는 다음 편지에 계속)

* 간 * * * * * 祝 * * * * * 행 *

금번 스펜서 제이. 팔머 선교부장님은 그의 연구저서 한국과 기독교라는 책을 영국황실 아세아 협회가 출판하도록 허가하여 지난 2월 그 출판을 끝냈다.

왜 한국이 쉽게 기독교를 수락했느냐?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책은 한국에서의 기독교 성장과 한국 고유의 문화, 역사 및 사회성을 연결하여 폭 넓게 처리하고 있으며, 기실 한국 특유의 재래 사상과 기독교를 연결하는 교량의 임무를 맡는다.

팔머 부장님은 특히 아세아 지역의 선교사업에 관심을 가진 교회의 성도로서 한국의 내용과 기독교 적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저서에서 저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의 비극적 상황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 특히 부녀자를 중심으로, 또한 사회적인 우대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선히 받아들리게 된 경위를 역사의 증거를 들어 설파하고 있다.

이 저서를 가능하게 하는데 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하면서 이 책을 빌어 저자는 선교사와 선교부장이 토착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를 설명한다.

비록 표제를 한국과 기독교라고 했지만 저서의 처음부터

마지막장까지 흥미 진진한 아세아 전체의 기독교 활동상황이 소개 비교되며 필자가 기억하는 바 저서의 내용중 일본인들이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자기들 나름으로의 견해와 그것을 자기들 고유의 사무라이 정신에 관련시킨다는 고증은 특히 흥미 있는 부분이였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국어로 번역 출판될 계획이라는 이 책은 우리들에게 있어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출판의 사실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준다. 사실 한국나이 열살인 우리 교회가 그저 군소 종교집단이라는 사회적 대우를 받는 상황하에 교회들 큰 비중으로 높고 고상하게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이 반영된 중요한 출판물을 사회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나라가 전통적으로 믿고 섬겼던 최상의 신의 명칭이 하나님이였다는 것과 그것을 최초의 선교사가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한국민에게 설파하여 성공했다는 사실을 천, 삼계, 신의 세 절대 명칭을 가진 중국에서 최초 선교사들이 절대자의 이름을 정하는 일에서 범써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비교한 점은 범속한 우리토서도 쉽게 수긍하는 바이다.

끝으로 한마디, 이 저서를 통하여 저자는 기독교 그것이 토착민의 생활 양식과 전통적 습관을 존중함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토되 자체의 원리를 변경하면(전통적 관습을 존중하기 위하여) 실패한다는 것을 암시한 사실을 중시해야 할 것 같다.

"이 책에 관하여 특별히 말씀하실 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한 기자에게 선교부장님은,

"글세요, 이 책의 특징이랄까 그런게 있다면 내용의 참조 사항이 지극히 잘 정리 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내용이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했고, 색인표가 책 내용 만큼의 분량을 차지한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결코 나 개인의 명예나 인기를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교회를 앞에 둔다는 점을 밝히고 싶군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끝냈다가,

"사실 이토 인하여 이 사회에서, 또 나아가 전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교회가 이롭게 된다면 나의 작업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 개인을 위한 것에 그쳤다면 그건 실패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결의가 굳어 있습니다."

조용한 그러나 굳은 의지가 뭉쳐진 얘기였다. 그때 기자는 이를 말씀하시던 선교부장님이 속으로 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선교부장님의 저서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토 인하여 대 사회 교회 지위가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

(성도의 벗 편집실 기자)



지부消息

한국 지방대회를 마치고

서울 지역: 지난 2월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지방대회 서울지역 대회가 새해들어 처음으로 선교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인천지역도입 형제들이 첫선을 보였으며, 아톤신권 소유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준비된 신권회 대회는 아톤신권 개인상 수상준비를 강조하였다. 제일총회는 팔마 선교부장님을 비롯한 선교부와 지방부 역원들의 감명깊은 영적인 말씀으로 장식되었다. 제이총회가 있기전까지의 점심시간은 지방부 상호부조회에서 준비한 여러가지 간단한 음식을 들면서 형제 자매간의 우애를 두텁게 했다. 제이총회는 오후 2시부터 가졌으며 특히 서부지부 합창단의 특별합창은 듣는 이의 가슴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의들 다시 한번 고취시켜준듯 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유석재 형제와 심교진 형제가 대신권을 받았다.

남부지역: 남부지역의 대회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동구지부에서 열렸으며 서울대회에서 말씀하셨던, 교회 지도자들이 역시 말일성도로서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들을 해주셨다. 점심시간엔 부산동구지부 자매들이 준비한 갈비탕과 육계잠을 음미하며 서울, 대구, 광주, 그리고 부산의 소식을 서로 주고 받는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다. 광주지역에서 오신 박병규 형제는 광주성도들의 눈물겨운 개척의 역사를 감동한 신앙의 간증과 함께 청증들에게 전하여 주었다. 이 밖에

도 동구지부 소년단원의 질서있는 안내와 대회장 안팎에서의 활약은 보는이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 주었다.

이번 대회의 참석업 인원은 약 천사백명에 달하며 그들의 마음속엔 각자대로의 보람찬 수확이 간직되어,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각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었으리라 믿는다. 이번 대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역원과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삼척 지부

지방부 주일학교에서 주관하는 월례 전체역원회에서 삼척지부 주일학교 역원들은 그들의 실력을 발휘하여 성구암송과 유년 주일학교 연습찬송 가사 의우기 대회에서 종합성적 제1위를 하였고 그 상품으로 찬송가 10권을 받았다고 한다. 이 모임을 위하여 삼척지부 주일학교 역원들은 많은 준비를 하였더니 제1위를 하였음은 당연지사라고나 할까.

지난 3월 1일 삼척지부 삼향회에서는 관악산으로 신춘봄맞이 등산을 하였다는데 27명이 참가한 이 등산은 시종 유쾌한 하루를 장식하였다는바, 산정에서 지어먹은 점심은 글자 그대로 재미였다나.

동부 지부

그동안 지부장으로 수고해온 황종실 형제가 지방부 서기로 부름받음으로서 동부지부장에서 해임되었으리니 새 지부장으로서는 그간 지방부장 제2보좌로 많은 봉사들 해온 송택실 형제가 선임되었다는 소식. 한국 지방부내에서 가장 부모가

든 대회원 가족을 거느린 동부지부장 송태섭 형제는 한국선교부에서 처음 창설한 교육기관인 일문 유치원을 아울러 돌보게 될 것인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진 동부지부가 역시 미남지부장을 맞이 했으니 아름다운 시온이 세워질 것임이 틀림없다고들 수군 수군 하더라나. 듣는이의 마음도 흐뭇한 이야기. 축하합니다.

부산 지부

지난 2월 25일 부산지부에서는 남부지역 상호부조회 역사가 만찬회가 배풀어졌는데 팔머 선교부장과 그의 보좌, 지방부장단, 그리고 남부지역 각 지부 지부장단이 초청되어 불고기와 잡채, 수정과 등, 별식이 대접되어 초대받은 신권 소유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만찬후의 순서도 훌륭하게 준비되어 상호부조회 역원들의 눈에 띄는 수고를 인정하게 되었단다. 상호부조회와 신권 소유자들의 상호 이해가 향상요청되어오던바, 이러한 기획을 통하여 그러한 요청의 일부를 해결하게 되었다니 기쁜일. 부산지부 자매들과 부조회 역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전갈.

부산 동구

2월 26일 남부 지방대회 참석자를 위하여 부산 동구지부에서는 점심을 준비하여 엽가로 제공하였는데 메뉴에는 갈비탕과 육계장이 있었고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거의다 이것을 이용한 관계로 오후 총회이 출석수가 많았다나. 김지부장을 비롯한 모든회원, 특히 부조회자매들에게 감사할 일.

編輯後記

달을 거듭함에 따라 알차게 변모해가는 성도의 벗. 제법 부끄럽지 않은 진귀한 내용. 기교를 살린 편집의 묘. 흥미를 돋구는 사진들. 특히 이번호에는 멀리 미국에서 보내 온 홍병식 형제의 옥고와 하이어 박사 회견기, 그리고 "저기 그가 간다."는 표제하에 취급된 말일성도 우주인에 관한 기사가 독자들의 마음에 큰 감명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여러분의 독후감이 성의있게 편집실로 날아들기를 욕심으로 간직해 본다.

날로 발전하는 성도의 벗과 더불어 삼월의 춘풍을 타고 날아온 소식은 구독 신청. 신청. 신청. "네네 더 보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즐거운 비명을 울리기 시작하는 편집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달)

삼월은 소쟁하는 달. 편집실 창밖으론 봄비가 나린다. 강남 갔던 제비는 돌아 왔는가?

지방대회를 준비하고 지방대회를 끝내고

그러나 그 분주한 속에서도 "성도의 벗" 편집실은 3월호 편집으로 정신을 쏠아야 했다. 삼월의 박수가 들리는데 그냥 피곤하다고 쉬 수 있겠는가?

파랗게 돌아나는 새 생명의 숨소릴 듣는다. 그리고 우린 그런 소망으로 부풀어 오르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인)

성도의 벗

發行人 스펜서 제이·팔마

發行人補 車 鍾 煥

編輯人 韓 仁 相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清雲洞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本部